

공동체 인식과 행복의 영향관계 분석 -충청남도 마을기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전 지 훈 · 정 문 기

본 연구는 공동체활동을 수행하는 주민들의 시각에서 실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이러한 영향관계에서 공동체인식의 어떠한 부분이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영향분석을 위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개인적자원, 정부행정자원, 생활환경자원으로 구분하였고 공동체인식 요인은 공동체성과 공동체역량인식으로 구성하여 공동체 인식의 조절효과를 검토하였다. 대상은 실제 공동체활동을 수행하는 마을기업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개인적자원의 결과에서 소득수준보다는 건강에 대한 인식이나 긍정성에 대한 인식은 행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중요한 점은 단순히 소득수준 향상에 대한 접근보다는 공동체에서 스스로 자존감과 긍정적 인식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활동의 영역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행정요인이 행복의 주요요인으로 규명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고 책임성과 정치적 자유보장과 같은 정부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셋째, 공동체요인 중에서 공동체성은 주민의 행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사조절변수의 형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행복형성을 위해 공동체활동을 영위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간 보다 활발한 상호교류 활동을 증진하는 것이며 소속감과 연대감을 높이는 실천적 행위라 볼 수 있다.

주제어: 행복, 정부의 질, 공동체성, 마을기업, 조절효과

* 이 논문은 충남연구원 2016년 기본과제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본 연구는 전지훈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6)인 “공동체요인이 행복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충청남도 마을기업 종사자를 중심으로”의 내용을 요약·수정발전 시켰다. 유익한 심사평을 해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린다.

주저자 : 전지훈, 교신저자 : 정문기

1. 서론

모든 인간은 행복하고자 소망하며 행복의 관심은 공공의 역할과 연구의 관심을 오래전부터 유도해 왔다. Aristotle(1984)는 행복이란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모든 선 가운데 최고의 것이며 궁극적인 목적임을 언급하고 있다. 그는 행복에 대해 우리는 언제나 행복을 그 자체 때문에 선택하며, 결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선택하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자족성(自足性)과 완전성(完全性)의 개념을 갖는다고 보았다. 이처럼 Aristotle에 의해 행복은 인간에 있어서 최고선으로서 철학에서 나아가 인간 삶의 가장 핵심부분을 형성하는 개념으로 명료화되었다. 특히 근대사회 이후 미국 독립선언서나 프랑스 대혁명의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개인의 실존적 사고의 확산은 개인의 행복을 국가와 정부의 존재 목적으로 부각시켰다.

이후 자본주의 사고를 중심으로 한 현대사회에서 소득과 같은 경제적인 변수가 행복의 주요 원인이었으나 Easterlin의 역설 이후 소득을 포함하여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대표적인 요인들로 교육, 건강, 결혼 등의 개인적 변인과 함께 사회적 자본과 같은 관계재(relational good)와 공동체활동, 정부의 질, 쾌적함과 같은 사회적 환경 등의 영역들이 많은 연구들에서 등장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도 행복은 정부의 중요한 가치적 요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도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 추구를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민행복은 4대 핵심 국정기조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국내에서 행복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각종 지표들의 결과와 함께 경제적 불평등 및 사회적 배제가 고착화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50여년 동안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과거에 비해 소득수준이 향상된 현재 행복에 대한 국가간 비교는 만족할 만한 수준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016년 OECD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행복지수는 35개국중 29위이며 UN이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에도 157개국중 58위에 불과하다. 또한 OECD국가들간의 비교조사에 따르면 행복과 대조적인 지표로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28.4명으로 1위이며 노인빈곤률 또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은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나 한국사회는 아직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현재 우리사회에서 소득과 같은 경제적 발전과 국민의 행복 간에 일치하지 않은 현상들에 대해 많은 선행연구들은 관계재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재화들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으며, 경제적 발전과정에서 등한시 했던 공동체 및 호혜적인 가치들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여 개인의 진정한 행복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던지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인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개인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나 구성원과의 상호교류의 지향성에 대한 인식과 공동체의 집단 차원

에서 역량의 인식으로 구분하여 공동체에 대한 종합적 인식이 개인의 행복과 어떠한 영향 관계를 갖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실제로 공동체 활동과 인식에 대한 지향성은 많은 연구들에서 개인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행복의 키워드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Putnam, 2000; Pichler, 2006). 하지만 국내의 연구들에 있어서 실제 공동체활동을 하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요인들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특히 공동체를 지향하는 의식적 차원과 행복과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McMillan & Chavis(1986)에 따르면 공동체의 소속감이나 유대감과 같은 공동체성은 구성원으로서 핵심적 덕목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체성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공동체활동이 진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 공동체에서 공동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행복에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하며, 특히 다양한 요인들에 있어서 특히 공동체성의 요인이 어떻게 효과들을 조절하는지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절효과의 분석은 공동체성이 어떻게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분석 결과와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의 이론적 논의

1. 행복의 이론적 논의

1) 행복의 의의와 개념

행복에 대한 담론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탐구의 역사라 볼 수 있다. 특히 서양의 고대 사상은 궁극적으로 존재에 대한 ‘좋은 삶’을 강조하고 있으며 어떻게 좋은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가치에 대한 문제가 정치 및 윤리의 핵심적인 테제였다.

Aristotle는 행복의 개념은 최고선으로서 행복의 추구를 철학적 목표로 보았으며 인간의 최고선으로서 철학과 삶의 가장 핵심부분을 형성함으로써 상식적 의미의 행복을 철학적으로 명료화한 의의를 지닌다(맹주만, 2013: 169). 따라서 행복 논의에서 Aristotle의 윤리학적 접근은 행복개념의 역사적 흐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Aristotle는 행복의 개념에 대해 우리는 언제나 행복을 그 자체 때문에 선택하며, 결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선택하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자족성(自足性)과 완전성(完全性)을 제시한다(Aristotle, 1984). 그에 의하면 인간이 추구해야 할 덕목으로 선을 제시하며 이는 사회의 목적론적 사고로서 이를 행위하는 데 덕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공동선을 지향하는 덕 추구의 행위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상태로 행복의 개념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근대 이후 행복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의 시도는 행복을 개인의 쾌락과 사회적 유용성의 측면에서 본

공리주의에 비롯되었다.¹⁾ 여기에서 Bentham은 최초로 행복을 쾌락 및 유용성의 의미와 같이 사용하였고, 이러한 행복 개념의 정의는 정부가 개인의 행복 증진을 통해 사회적 유용성을 향상해야 한다는 공리성의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²⁾

이러한 철학적 논의들은 행복연구에 대한 두 가지 경향의 기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Aristotle가 주장하는 행복주의(Eudaimonism)의 연구로 덕성에 기반한 공공선을 강조하는 보다 지속적이고 사회적인 연구경향을 의미한다. 후자는 행복을 즐거움과 쾌락의 단기적 감정으로 이해하여 개인의 효용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쾌락주의적 연구경향이다(정지범, 2011; 우창빈, 2013; 김현정, 2016). 하지만 행복에 대한 사상적 접근에 있어서 단기적 쾌락의 감정으로 인식하는 것은 대부분 사상가들에게 지양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서구사상에서도 보편적이며 초월적 이성애 합목적적 행위를 통해 행복을 획득할 수 있다는 중세철학 뿐만 아니라, 자유라는 개념을 포함해 합리적 이성을 통한 존엄성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근원이라는 계몽주의 철학도 이에 포함된다(이용철, 2013; 김성동, 2007; 홍병선, 2012). 특히 Hegel, Honnet의 경우는 타인과의 상호주관성에 기반한 인정욕구의 충족과 사회적관계를 강조하며 이러한 흐름은 공동체, 국가적 차원의 행복을 제시하는 흐름으로 발전된다(Hegel, 1987; Honnet, 2003; 문성훈, 2011; 박수호·이민정, 2013). 동양에서도 공자는「論語」에서 인자의 판단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것을 언급하며 학문을 통한 내적 즐거움과 대인관계의 행복을 제시하지만 육체적 쾌락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맹자는 나아가 행복은 백성들과 함께 즐기는 것이며 선을 추구해야 함을 주장한다(이상임, 2005).

이러한 철학적 흐름들을 보자면 행복은 단순한 일시적 쾌락만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심리학적 측면에서도 행복은 인간이 성장하면서 경험을 통해 형성된 내면적 자의식의 성립에서 찾고 있다(Diener, 1984). 이러한 연구경향들에 의해 행복의 개념에 대해 Veenhoven(1991)을 비롯하여 다양한 행복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바는 행복이란 다양한 연구적 경향성과 개념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순간적인 쾌락보다는 종합적인 삶의 질과 생활의 만족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자면 행복의 개념화는 개인이 처한 종합적인 현실과 가치 및 경험을 통해 삶의 전체적인 의미에 있어서 지속적인 만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처럼 행복 개념이 Aristotle에 의해 인간이 살아가는 궁극적 가치로서 추구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공리주의의 주장처럼 각각 개개인의 행복의 양을 극대화하는 것이 사회전체적인 행복을 증진하게 된다는 이론적 기반에 따라 가치지향성 사고가 확장되는 현재 행정학에서

1) 탁석산(2013: 13)에 의하면 현대적 의미에서 행복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된 것은 Bentham의 유명한 공리주의의 명제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하면서부터이다.

2) 공리성의 원리란 어떤 행동이 관련 당사자들의 행복을 증대시키느냐 감소시키는 것처럼 보이느냐에 따라, 행복을 촉진하는가 저해하는가에 따라 모든 행위를 시인하고나 부인하는 원리를 말한다(Bentham, 1789).

행복의 의미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현대 행정에 있어서 정부활동의 근본적인 목적은 미국의 독립선언문에도 언급된 행복추구처럼 국민과 시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다(서재호 외, 2012).

2) 행복의 영향요인 구성

행복의 개념이 매우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행복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도 이에 대한 보편적인 개념정의나 영향요인 규명에 한계가 있고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어 왔다. 특히 Easterlin(1974) 연구결과처럼 사회과학에서 행복과 소득의 관계가 불명확해짐에 따라 다양한 요인들과의 행복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³⁾ 이러한 행복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다양한 학문 영역에 걸쳐 있다. 본 연구는 행복의 다양한 영향요인을 사회적 흐름과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요인들을 종합하여 3가지 차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행복은 근대 이후 국가 및 사회의 가치지향적 목표로 자리잡으면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증진을 위한 다양한 과학적 연구들이 시도되면서 본격적으로 영향요인 연구가 주목받았다(Kahneman et al., 1999; Frey, 2008). 특히 자유주의 사고로 변화한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행복은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공리주의 사상이후 경제학, 심리학 등 개인의 효용성 가치가 주목받으면서 개인차원의 소득, 건강, 정서 등 요인을 행복과 연관성이 높은 요인들로 거론되어 왔다. 현재도 Diener(1984), Seligman(2002), Maslow(1999)와 같은 심리학자들에 의해 긍정적인 사고, 자아존중감, 적응 및 지위비교와 같은 개인의 심리적 인식 측면의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사회학적 연구에서 개인의 삶과 연관된 부분으로 건강, 교육, 결혼, 노동, 종교와 같은 요인들을 가장 행복감과 밀접하다고 주장한다(Veenhoven, 1991, Subramania et al, 2005; Frey, 2008). Dolan(2014)의 논의처럼 행복 개념의 연구에서 결혼, 나이, 직업, 소득 등 개인적 차원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강조된다.

다음으로는 개인의 가치관과 삶이 사회와 공동체에 유리된 사고는 계몽적 허구성에 지나지 않으며 사회적 가치와 제도에 뿌리박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는 Sandel이나 MacIntyre의 주장처럼, 개인의 행복의 추구는 정치와 제도적인 의미를 내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행복과의 관계는 개인차원의 행복 관계를 넘어서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나 자유의 추구 및 정부의 질과 같은 정부행정적 차원의 요인을 강조하게 된다. 다양한

3) Easterlin(1974)의 연구 이후에도 행복과 소득과의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Easterlin 패러독스에 대해 다양한 연구에서 쾌락의 쳇바퀴 효과(Hedonic Treadmill Effect)와 지위의 쳇바퀴 효과(Positional Treadmill Effect)를 통해 이러한 현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Veenhoven (1991), Stevenson & Wolfers(2008) 등의 연구에서는 Easterlin 패러독스에 반론이 제기되어 논쟁이 이어오고 있으나 소득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은 Easterlin의 연구 이후에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연구에서 사회적 측면에 있어서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고 있는 정부의 활동과 공공활동의 신뢰 및 만족 차원을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Helliwell & Putnam, 2004; Sirgy, 2001; 최예나·김이수, 2015) 시민들의 삶의 만족은 현대 국가들의 사회적·환경적 요인을 반영하여 평가되며, 이러한 요인들은 국가의 제도와 정부활동에 의해 형성되며 변화하게 되기 때문이다(Eckersley, 2000; Di Tella et al., 2010).

또한 현대사회에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환경 차원의 문제도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와 도시환경의 차원에서 쾌적성을 의미하는 어메니티(Amenity) 요인이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하였는데, 정치경제의 발전보다도 인간적인 삶과 환경적 문제에 대해 주민의 관심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전여옥, 2003; 유승호, 2008). Montgomery(2013)은 도시미화운동 시각에서 도시의 아름다움 자체가 사회적 행복을 고양한다고 보고 있으며 Kearns & Philo(1993), Zukin(1995)은 도시의 문화예술을 비롯한 생활의 질의 향상은 인적자본을 유인하는 도시의 긍정적 이미지 구축 전략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삶의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논거를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근린의 환경적 문제도 주요한 고려요인인데, 재난 등 물리적 환경 위협은 Maslow(1999)가 제시한 기본적 욕구의 미충족으로 볼 수 있으며 Welsch & Kuhling(2009)는 행복지수에 있어서 환경평가를 통한 환경문제의 적극적 고려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환경차원의 논의는 행복의 주요한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행복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이러한 연구 영역과 분야에 따라 개인적차원, 행정적차원, 생활환경의 차원으로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⁴⁾ 본 연구는 <표 1>처럼 3가지 차원의 요인을 행복 영향요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적 요인은 주로 인구통계적 특성을 비롯하여 긍정성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이 포함되며 정부행정요인은 정부의 질이나 정치적 자유와 같은 사회적 요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생활환경 요인은 재난안전의 인식이나 생활의 질과 같은 요인들이 포함된다.

4) 이에 대해 다양한 행복영향요인을 제시한 연구를 살펴보면 Welsch(2009), 이현국·이민아(2014)는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환경적 특성으로 행복요인들을 구분하고 있으며 김현정(2016)은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실업률, 사회적 자본, 정부의 질, 자율성과 같은 사회적 요인, 그리고 자연환경이나 안전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고명철·최상욱(2012), 구교준 외(2015)등 행복 연구에서는 다양한 행복 결정요인 연구들을 분류하면서 개인적 요인을 심리학과 경제학을 중심으로, 국가사회적요인을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제시하며 안전, 도시환경 등 물리적 환경의 부분도 주요한 영향의 요인으로 거론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3가지 행복요인들의 차원구분도 이와 같은 분류적 접근에 근거한다.

〈표 1〉 행복 요인의 구성

행복 차원	행복 차원구성 내용	관련 연구
개인적 차원	공리주의, 자유주의 사고에 기반하여 소득, 건강, 결혼, 직업, 심리 등 개인적 효용성 가치를 추구하는 요인	Kahneman et al(1999), Frey(2008), Diener(1984), Seligman(2002), Maslow(1999), Veenhoven(1991), Subramania et al(2005), Frey(2008), Dolan(2014)
정부행정 차원	개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공공서비스와 사회 시스템의 질	Helliwell & Putnam(2004), Eckersley(2000), Di Tella et al.(2010), Sirgy(2001)
생활환경 차원	인간을 둘러싼 쾌적성, 문화 등 지역사회 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하는 삶의 질 요인	Kearns & Philo(1993), Montgomery(2013), Zukin(1995), Welsch & Kuhling(2009)

2. 행복과 공동체인식의 관계

1) 행복과 공동체의 이론적 관계

인간의 상호주관성과 교류활동과 같은 사회적 관계의 형성은 개인의 행복추구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 철학,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다. Diener(1984), 구재선·서은국(2011), 장용석 외(2012), 정명은 외(2014) 등에 따르면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미약하며 오히려 행복은 타인과 집단과 관계된 사회적 성질로 개인들의 상호작용에 따라 창출되는 가치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 공동체를 비롯한 사회적 집단의 차원에 있어서 개인의 행복과 관계는 중요한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개인들의 공동체 사고와 활동들이 행복의 형성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직접적인 논증에 대해서는 Aristotle의 사상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Aristotle는 목적론적 사고를 기반으로 최고의 가치이자 궁극적인 목적으로 행복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공공선에 의한 덕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Hegel과 Honnet과 같은 독일 철학자들은 자아와 타자간의 상호인정에 의한 소속감과 행복의 추구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⁵⁾ 나아가 Levinas는 인간의 실존은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참된 실재가 형성되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이 존재의 충만을 의미한다면, 타자와의 올바른 인간관계의 형성은 그 자체로 ‘행복’을 의미한다고 보았다(이명곤, 2002).

행복에 대한 유전자와 진화론적 논의에 있어서도 인간의 행복은 사람들간의 상호관계를 위한 외향적인 성향과 사회적 관계의 빈도와 만족감을 통해 추구될 수 있으며 이는 집단에

5) 물론 그 이전의 근대 철학에서도 사회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타인을 통해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었으며 이는 인간의 정체성 형성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의 형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마키아벨리, 홉스, 루소는 인식하고 있었다(Honneth, 1995: 10)

의한 사회성, 즉 타인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활동하는 시간과 장소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다(서은국, 2014; Nettle, 2006; Weiss et al., 2006). 특히 서은국(2014)는 인간의 친사회적인 행동은 타인과의 결속력을 높여서 생존에 필요한 사회적 자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통한 강력한 보상으로서 행복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공동체 요인과 행복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자면, 개인의 진정한 행복은 타인과의 상호성에 기초하여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집단 안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간에 사회적 인정과 상호교류는 인간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며 이를 행복이라는 감정을 통해 실제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의 순간적 쾌락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보다 지속가능하고 사회적 의미에서의 시민주의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공공행복의 시각에서 공동체를 비롯한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활동은 매우 중요하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또한 행복의 영향요인에 있어서도 Diener(1984), 장용석 외(2012), 정명은 외(2014)이 언급 하듯 개인적 차원의 요인보다 사회적 요인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나 공공의 정책적 관심을 유도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Helliwell & Putnam(2000), Montgomery(2013), 장용석 외(2012)는 개인의 행복은 집단 및 사회적 요인과 강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타인 및 사회와 상호교류 및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행복에 있어서 개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요인의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2) 공동체의 이론적 논의

일반적으로 공동체(Community)개념은 'Common'과 'Unity'의 합성어로 공동체제, 공동생활, 공동소유 등의 의미를 지니고 근린공동체, 지역사회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Chaskin, 1997; 전대옥, 2012). 특히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라는 용어의 개념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다의적이며 신축적인 개념이다(이중수, 2008). 따라서 공동체의 개념 모색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요한 구성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공동체 개념과 구성요인은 <표 2>처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공동체의 개념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연구에서 Hillery(1955)가 제시한 지리적 영역, 구성원간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감 부분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교통 및 통신기술의 발달로 공동체의 개념정의에 있어서 공동의 유대감과 같은 정서적 부분의 비중이 커지게 되었고 이는 공동체성의 개념으로 공동체의 변화적 개념을 보완해주고 있다(Brint, 2001). 이러한 의미에서 현대사회 공동체는 지역 특성보다는 개인적 친밀감, 사회적 응집력, 정신적 관여, 연속성 그리고 감정적 깊이 등을 공동체를 구성하는 요소로 비중있게 다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신예철, 2012: 27). 그리고 공동체 개념이 일반사회와 구별되는 것은 공동 목적을 추구하는 일체감, 참여의식과 상호교류 및 이에 따른 공동행위라는 점에서 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강용배, 2003).

〈표 2〉 주요한 공동체 정의 종합

연구자	공동체의 정의	구성 요인
Hillery(1955)	일정지역의 근접성을 바탕으로, 구성원간 상호작용이 발생하며, 공통된 목적과 의식을 공유하는 집단	지역, 상호작용, 공통 의식
Amit(2002)	일정 집단내에서 존재들의 감각공유를 바탕으로 지역 만들기의 과정이며 그 생산물	일정집단, 감각공유, 지역만들기
Etzioni(1993)	사람들간 공통의 가치와 신념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네트워크	공통가치신념, 네트워크
MacIver(1970)	마을이나 소도시, 국가와 같이 일정한 지역적 경계 안에서 공동의 생활을 하는 생활지역으로 일정수준의 사회적 응집성을 갖는 공동생활의 일정영역	지역공간, 공동생활, 사회적 응집성
Mattessich. et al. (1997)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 안에 거주하면서 상호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해 사회적 심리적 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정된 지역, 사회적 심리적 유대
박병춘(2012)	물리적 공간으로서 일정한 지역을 주요 기반으로 하며 지역주민과 생활전반에 걸쳐 서로 긴밀하게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공동의 목표와 가치라는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는 사회적 조직단위체	지역기반, 사회적 상호작용, 정서적 유대감
최병두 (2006)	지역성을 전제로 하며, 나아가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가치의 공간으로 문화적 전통, 사회적 융합, 그리고 규범적 구조가 생산되고 재생산되는 영역	지역성, 공유가치, 전통과 규범 재생산

특히 지역 공동체의 개념은 지역주민들이 기반하는 생활세계의 장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형성하는 자치의 실현공간으로서 행정학 연구의 매우 중요한 기초 근린생활공간으로 볼 수 있다. 김찬동(2012: 3)은 지역공동체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을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하므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토양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는 지역주민들이 밀접한 삶의 질을 경험하고 공공복리가 요구되는 가장 기초적인 행정단위로서 공공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집행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Aristotle는 공공선에 대해 공동체에서 사회적관계를 통해 구성하는 가능태의 개념으로 제시하였고 공공선을 추구하는 덕의 행위를 통해 인간이 행복(Eudaimonia)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았다(Aristotle, 1984; MacIntyre, 1966). 따라서 인간의 행복에 대한 윤리학적 논의는 공공선의 목적에 부합하는 덕성의 실현이라는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함께 공동체의 논의가 현재 강조되는 것은 다양한 현대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공동체가 부각되기 때문이다. 박인권(2013: 10)은 지역공동체 사고는 인간중심의 발전을 의미하며 지역주민의 복리(well-being)를 위한 발전을 염두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공동체의 의미는 우리사회가 빈부격차, 지역의 일자리 부족, 사회적 갈등, 이웃에 대한 배려의 부족에 따른 주민의 삶의 질 저하 등 국가와 시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지역공동체 연구의 중요성을 거론할 수

있다(김현호, 2013: 16).

3) 공동체인식의 개념과 구성

앞서 이론적 논의에 따르면,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의식과 활동으로 인해 본질이 구성되는 집단적 형태로 규정할 수 있다. 우선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공통적인 가치가 존재하고 개인의식을 초월하여 집단을 형성할 수 있는 내면적 인식적인 요인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공통된 집단적인 인식은 Nisbet(1953), McMillan & Chavis(1986) 등이 규정하고 있는 공동체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 공동체성은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공동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관계적 특성에 기반하여 가치를 공유하고 소속감과 연대감을 통해 형성되는 집단적인 의식적 차원을 의미한다(Nisbet, 1953; McMillan & Chavis, 1986). 따라서 지리적인 공간범위 안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되어 공동체의 소속감을 공유하는 개인들의 공통된 의식으로 공동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공동체성(The Sense of Community)은 개인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갖고 있는 내면화된 공통된 인식과 의식적인 차원을 의미하며 이는 공동체의 구성목적이나 역사 및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공동체성에 대해서는 McMillan & Chavis(1986)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공동체성의 4가지 주요 구성요인을 통해 정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들은 공동체에서 구성원들간의 소속감, 개인과 공동체간 상호영향관계,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의 욕구 충족감에 대한 믿음,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친밀감과 유대 요인들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공동체성의 개념에 대해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개인이 타인 및 공동체와 맺는 상호성에 주목하면서 그 결과로 형성된 특정 집단의식 및 공통된 가치의 형성을 포함하고 있다(Nisbet, 1953; Popplin, 1979; Davidson & Cotter, 1986; 김남선, 1995). 그리고 공동체성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인식은 공동체의 참여의지를 거론할 수 있다. 참여의지는 스스로 인식대상인 공동체의식을 구성하고 형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주체적 의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이다. Synder et al.(1986)은 개인이 속한 사회와 공동체의 구조가 참여를 유도하고자 쉽게 가능하게 될 때 개인들은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분석된다고 제시하고 있다(신예철, 2012: 88; 재인용).

반면에 공동체는 개인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직체로 개인들간 상호작용의 역할을 가진다. 따라서 공동체는 개인과 조직의 측면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조직역량은 중요한 요인이다. 김종일(2007)은 공동체를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체로 보는 시각에는 공동체와 개인들간에 발생하는 관계맺음의 역동성이나 이를 통한 변화와 발전의 과정을 간과할 수 있다고 비판함에 따라 개인 인식과 함께 조직 차원에서 공동체 역량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 공동체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리더나 조직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동체 역량의 요인은 공동체요인의 주요한 부분이다. 공동체 역량에 대

해 신예철(2012: 40)은 구성원 참여, 협력과 파트너십 등을 강화하고 공동체의 문화와 사회적자본 형성과 같은 요인을 거론함을 제시한다. 이러한 공동체 역량요인은 개인이 공동체를 지향하는 공동체 중심의 사고에서 나아가 실제 구성원들이 공동체속에서 공동체성을 실천할 수 있는가의 역량 차원 모색을 의미한다. 이재혁(2007)은 지역공동체역량은 주민들간 유기적 의사소통과 신뢰, 정체성 확립을 기반으로 결속과 통합의 역량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지역공동체 역량은 조직중심의 통합적 시각을 바탕으로 구성원들간에 강화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공동체 인식은 구성원 개인들의 공동체 지향적 인식들과 함께 구성원들간에 정체성 형성 및 연대, 협력을 통한 통합적 역량의 인식의 부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역량 인식의 필요성이 수반되는 것이다.

실제 구성원들의 공동체성이 높을지라도 구성원들간 조직 역량에 의해 실천과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면 공동체활동과 지향인식을 통해 행복을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행복을 위한 공동체는 참여활동을 독려하고 상호교류를 풍부하게 구성하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의미론적 시각을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신중진 외(2013: 46) 연구에 따르면 지역공동체 역량은 공동체 활동에서 핵심기반이 되기 때문에 공동체와 개인의 행복의 관계를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 공동체의 리더나 조직역량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Lash(1994)에 의하면 형식화를 지양하고 보다 실천적인 형태로서 성찰적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자율성과 의사소통을 보장하며 공통의 집합적 실천을 보장하는 공동체의 역량이 필요함을 강조한다.⁶⁾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인식에 있어서 개인적 요인과 집단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동체 참여자로서 개인이 인식하는 공동체성의 요인과, 공동체집단에 대한 인식으로서 공동체 역량의 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 검토

행복연구는 철학부터 생물학 등에 걸쳐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 사회과학 분야의 행복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일반적 소득수준 비교와 함께 불평등, 상대소득과 같은 경제적 관계에 주목하거나 이에 대한 Easterlin의 역설이후 공동체역량 등 사회적 요인을 강조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Kim & Ohtake, 2014; 문진영, 2010; 이양호 외, 2013; 한준 외, 2014; 구교준 외, 2014; 김현정, 2016; 류지아, 2016). 그리고 행정학 측면에서 정부행정요인과 행복의 관계에 주목한 선행연구들도 있는데 주로 공공정책 방향정립을

6) 특히 전통적 의미의 귀속 공동체나 이익집단과는 다른 현대의 공동체는 구성원의 자율성과 이성적 합리성에 따른 성찰적 공동체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 Lash(1994)는 성찰적 공동체에 대해 구성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참여자들의 공유된 가치체계에 따른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통적 공동체가 규정되어진 집합적 의식과 가치를 기반으로 개인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성찰적 공동체는 사회적 행위자의 자아성찰성에 의한 자율적 행동의 역량을 강조하는 것이다.

위한 행복의 개념적 당위성을 고찰(우창빈, 2013; 구교준 외, 2015)하거나 정부 서비스 및 공공행정과 행복과의 영향관계에 대해 실증분석의 연구가 있다(김병섭 외, 2015a, 김병섭 외, 2015b, 고명철, 2013a; 이현국·이민아, 2014; 배정현, 2014; 우창빈, 2014).

행복이론에 근거하여 많은 연구들은 공동체활동이 개인의 행복감을 향상시킨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자본이 주목한 Helliwell & Putnam(2004)의 연구가 있고 Bartolini & Bilancini(2010), Sarracino(2010)와 같은 연구들도 공동체 집단의 사회적 관계나, 구성원의 신뢰, 결사체 참여활동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행복감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제시한다(남은영 외, 2012). 특히 한재명 외(2015)는 관계재(Relational Goods)⁷⁾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구체적으로 공동체 참여유형의 관계재는 교제 및 가족관계보다 효과가 크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그리고 최예나·김이수(2015)는 전라북도민을 대상으로 사회적자본 요인이 다양한 차원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공동체의식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공동체와 관련되어 공동체성의 선행연구는 Nisbet(1953), McMillan & Chavis(1986)를 비롯해 김태영(2012), 서재호(2013), 최문형·정문기(2015) 등 주민참여 및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연구들을 거론할 수 있으며 공동체 역량의 선행연구로 Lash(1994)를 비롯해 이재혁(2007), 신예철(2012: 40), 신중진 외(2013: 46)등이 공동체 발전과 참여활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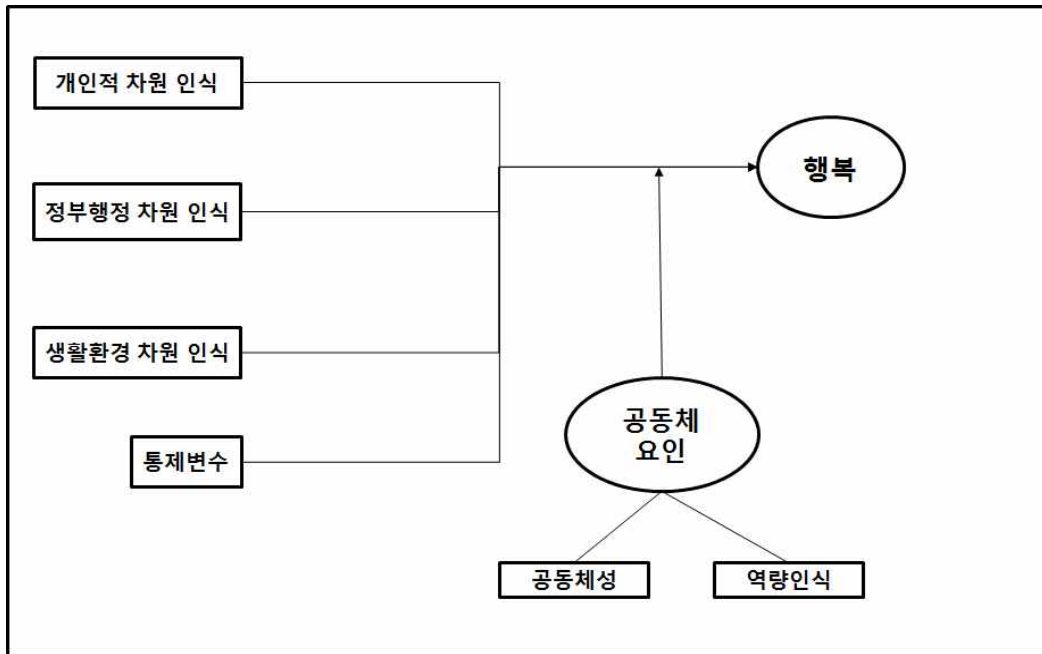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을 갖는다. 우선 공동체요인을 개인과 집단부분으로 구분하여 공동체성, 공동체역량인식이 개인의 행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관계를 다면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공동체 요인들의 행복에 대한 주 효과뿐만 아니라 조절효과를 통해 함의를 도출한다는 것은 선행연구와 주요한 차별점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단순한 공동체활동과 행복의 영향관계 도출에서 나아가 직간접적 다양한 영향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현실에 적합한 함의를 끌어낼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선행연구와 달리 일반 주민이 아니라 공동체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별점이 있다. 일반적 수준에서 나아가 공동체 활동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복형성 차원에서 공동체 인식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구체적인 영향관계분석을 실시하여 시사점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III. 연구설계

1. 연구 분석의 틀

7) 관계재는 Bruni & Zamagni(2007)에 의하면 공동체적 교류에 의해 생성되는 호혜적이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회적 교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재화로 정의한다.

본 연구는 개인의 행복에 있어서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관계와 함께 공동체요인에 대한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행복영향요인은 개인적인 차원, 정부행정적 차원 및 생활환경 차원의 요인들로 구분하여 실제 개인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개인의 행복과 행복영향요인의 관계에 있어서 공동체의 다양한 요인들이 어떻게 조절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공동체의 요인들은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한 공동체성, 공동체 역량요인을 통해 조절효과를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공동체 요인의 조절효과로 살펴본 행복과 행복영향요인간의 인과관계를 분석결과로 제시함으로써 개인의 행복 추구에 있어서 공동체 인식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며 특히 공동체 인식요인의 조절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조절회귀모형⁸⁾을 활용한다. 이러한 연구의 모형은 다음 (그림 1)로 제시할 수 있다.



(그림 1) 연구의 분석모형

8) 본 연구에서는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검증방법을 이용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곱(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독립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에 따르면 조절효과분석은 1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회귀모형에 투입되며 2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이 투입되어 1단계의 결정계수(R^2)와 2단계의 결정계수(R^2)간에 차이가 있으면 조절효과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조절변수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한다고 본다.

2. 변수도출과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공동체 요인들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우선 종속변수는 개인의 행복에 대한 인식으로 주관적 행복감과 삶의 질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의미하며 본 연구는 9점 Likert척도를 활용하여 개인의 행복감에 대한 인식과 삶의 만족감을 묻고자 한다.⁹⁾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은 앞서 고찰해본 바처럼 다양한 기준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의 유형과 기준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행복영향요인들을 개인적차원, 정부행정적차원, 생활환경차원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개인적 차원요인들은 행복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Maslow(1999), Diener & Lucas(1999), Seligman(2002), Layard(2006)과 같은 행복 연구에서 근거하고 있는 개인이 처한 상태나 심리학의 긍정성 인식이나 건강, 가족에 대한 긍정성과 같은 요인들이 포함된다. 또한 Inglehart(1997), Veenhoven(1991)의 연구를 통해 소득수준, 직업, 거주기간 등을 요인들을 변수로 포함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행정적 차원은 행복과 삶의 만족에 있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의 보장 및 불평등 해소와 이에 대한 정부의 성과 및 책임성과 안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질(Quality)을 고려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최진욱 외(2011)는 정부의 질은 정부존재의 당위성에서 출발하여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번영의 소임을 잘 할 수 있는 속성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부의 질에 대한 요인 구성은 앞서 거론한 세계가치조사와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지표를 활용한 Helliwell & Huang(2008)의 연구에서 활용되는 정부의 질의 구성요인들을 활용하고자 한다.¹⁰⁾ 그리고 생활환경적 차원은 개인을 둘러싼 주변환경의 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구조와는 달리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거시적이기보다 개인을 둘러싼 미시적인 환경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활환경 차원의 주요 측정변인은 Maslow(1999)의 이론이나 호주, 유럽, WHO 등 국가적 행복지수를 통해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치안 및 안전의 요인이 있다. 이와 함께 Montgomery(2013), Florida(2002) 등 연구에서 제시하는 거주에 있어서 녹

9) 서울서베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행복조사를 비롯하여 해외에서 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의 설문은 대부분 행복에 대한 질문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보고되는 단일 차원의 행복 문항의 구성 타당도는 많은 연구에서 인정받고 있는데 특히 Sandvik et al(1993)의 연구는 행복의 주관적 자기보고식 문항과 다른 다양한 행복문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모두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났고 신뢰도도 높아 기존 행복 측정시 단일 차원의 자기보고식 문항의 타당성을 보였다.

10) 서문기(2015: 120)는 이 거버넌스 지표는 기존의 성장과 분배 차원을 넘어 거버넌스와 시민참여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삶의 질과 행복의 역동적인 측면을 반영한다. 이러한 점에서 거버넌스 지표는 정부역량의 행정적 측면과 행복의 영향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주요한 분석적 틀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지공간 확보를 통한 근린환경의 쾌적성과 근린에 있어서 편의시설의 풍부함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행복의 영향요인에 대한 조절효과를 보기 위한 조절변수들은 공동체에 대한 인식으로 앞서 제시한 바처럼 공동체성과 공동체역량인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공동체성은 앞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제시되었던 바처럼, 우선 첫째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정체성, 상호영향의식, 애착과 참여와 같은 공동체에 대한 주체들의 정태적인 심적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동체의 가치와 지식 등을 공유하고 이에 인식을 의미한다. 공동체성은 실제 개인이 공동체를 대한 주관적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며 이와 함께 타인 및 공동체와 상호영향관계 및 소속감과 참여에 대한 의식 및 태도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공동체의 조직에 대한 인식으로 조직역량을 조절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공동체에 대한 인식은 개인적 인식과 함께 공동체 집단에 대한 인식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데 공동체역량에 대해 본 연구는 리더와 조직역량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공동체의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참여와 활동을 동기화하며 확대하는 중요한 기제이며 갈등의 해결과 명확한 비전의 제시를 통해 공동체의 역량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강용배, 2004; 신예철, 2012; 김인, 2014). 따라서 Northhouse(2013)이 제시한 바 처럼 공동체에서 리더십은 공동체가 주어진 사업과 목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 역량에 있어서 조직의 역량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Hainess(2009)의 언급처럼, 공동체의 발전 전략에 있어서 공동체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조직화 역량은 필수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함께 공동체 집단차원의 인식을 살펴봄에 있어서 공동체 집단의 역량을 주요 변수로 살펴보고자 하며 공동체 역량은 공동체 리더 역량과 조직역량으로 구분하여 조절변수를 구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조절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인 요인들에 대한 통제변수를 구성하였다. 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로 성별, 연령, 종교활동, 결혼상태, 교육수준, 거주기간, 거주형태, 장애유무의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포함한다. 이러한 주요 변수들을 종합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변수 및 측정 내용

구분	변수 항목	조작적 정의	측정 내용
종속 변수	행복도	개인의 행복체감 정도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감	행복의 체감 정도(9점 리커트 척도) 삶의 만족감 체감(9점 리커트 척도)
독립 변수	개인 차원	건강 인식	건강인식정도(9점 리커트 척도)
		긍정성 인식	긍정적 사고에 대한 인식
		소득 수준	소득수준(무급, 100미만, 100-200, 200-300, 300이상)
		공동체활동기간	소속 공동체 활동 기간
			활동기간(1년미만, 1-5년미만, 5-10

				년미만, 10년이상)
	정부 행정 차원	정치경제 자유	개인 정치·경제활동 자유보장정도	자유인식(9점 리커트 척도)
		정치적 안정성	정치와 정책집행의 사회 안정성	안정성 인식(9점 리커트 척도)
		책임성 인식	정부활동에 대한 책임성 인식 여부	책임성 인식(9점 리커트 척도)
		법의 준수	정부의 법집행에 대한 신뢰 여부	법집행 신뢰인식(9점 리커트 척도)
		정부 부패인식	정부 인사들의 부패인식 여부	부패정도 인식(9점 리커트 척도)
		정부 성과인식	정부활동의 정책활동 성과	성과에 대한 인식(9점 리커트 척도)
	생활 환경 차원	재난안전 인식	재난에 대한 지역의 안전도	안전성의 인식(9점 리커트 척도)
		녹지환경 인식	지역의 공원, 녹지공간여부	녹지환경의 인식(9점 리커트 척도)
		생활의 질 인식	지역 생활편의시설 존재여부	편의시설의 인식(9점 리커트 척도)
	조절 변수	공동체 성	상호교류 인식	공동체 구성원들간 상호교류
공동체 소속감			개인의 공동체 소속감	소속감 여부 인식(9점 리커트 척도)
공동체 참여			공동체 활동 참여의지	활동참여의지 인식(9점 리커트 척도)
공동체 역량		리더 역량	리더역량 중요성과 현실태 인식	리더 역량의 인식(9점 리커트 척도)
		조직 역량	조직역량 중요성과 현실태 인식	조직 역량의 인식(9점 리커트 척도)

이와 같은 변수측정을 위해 본 연구는 연구 집단으로는 실제 마을기업이라는 공동체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인식의 영향관계 분석을 통해 공동체 인식요인들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규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화된 인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공동체 요인들이 행복의 다양한 요인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구체적인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주 목적이다.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은 어떠한 공동체 요인들에 의해 행복을 인식하는 영향의 정도가 조절되고 변화하는지 구체적인 관계들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석을 위해 대상들은 공동체 요인들에 대한 인식과 공감의 전제가 요구되며 이러한 전제는 선행연구들에서 충분히 수행되었다고 본다. 이에 연구집단은 일반적인 개인보다 실제 공동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인의 특성에 주목한다. 실제 공동체 활동을 경험하고 있는 개인의 특성이 공동체 요인들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관계의 응답이 가능하며 효과적이라 판단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공동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기업에서 소속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마을기업은 마을 공동체의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기업을 설립하고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적 조직체라 볼 수 있다. 행정자치부(2016)에 따르면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정의한다.¹¹⁾ 마

11) 마을기업 인증을 위해서는 법인 출자자의 70% 이상이 지역사회 주민이어야 하며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체이어야 함을 행정자치부는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을기업을

을기업은 마을 공동체의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기업을 설립하고 공동체 자원을 기반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체 활동에 관해 제도적 형태로서 대표성을 갖는 조직에 대해 마을기업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국의 마을기업중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민관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충청남도의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IV. 연구 분석

1. 기초통계와 인식실태

본 연구는 실제 공동체 활동을 영위하는 마을기업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요인들의 행복 영향관계에 있어서 공동체 인식요인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충남 마을기업 57개¹²⁾를 대상으로 3년이상 활동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319부의 유효한 설문지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우선 설문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 4>과 같다.

<표 4> 설문조사 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분(표본수 319)		빈도	비율	구분(표본수 319)		빈도	비율
성별	남자	170	53.3	활동유형	공공협력	163	51.1
	여자	149	46.7		민간중심	156	48.9
연령	20대	11	3.4	월소득 (만원)	100이하	51	16
	30대	15	4.7		100-200	109	34.2
	40대	46	14.4		200-300	99	31
	50대	97	30.4		300-500	42	13.2
	60대	150	47		무급	18	5.6

공동체 활동 기반의 조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학실(2013), 전대욱(2015) 또한 마을기업 지원사업은 공동체기반과 주민주도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공동체 문제해결과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다양한 지역사회의 조직체 중에서 가장 공동체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 12) 자료수집의 타당성을 위해 충청남도의 마을기업 현황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는 충청남도 마을기업 지원사업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의 「2015 충청남도 마을기업 실태조사」 자료를 참조하였다. 이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마을기업은 2015년 12월 기준으로 96개가 존재하고 있으나 마을기업으로서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곳은 72개 기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현장에서 마을공동체와 연관을 맺고 기여하려는 노력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업은 83%인 57개로 파악되어 57개의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육수준	중졸	109	34.2	고용형태	무직	3	0.9
	고졸	165	51.7		일용직	76	23.8
	대졸	43	13.5		비정규직	38	11.9
	대학원이상	3	0.6		정규직	69	21.6
종교활동	없음	154	48.3		임원	76	23.8
	활동안함	33	10.3		대표	57	17.9
	소극적활동	22	6.9	거주형태	(연)월세	3	0.9
	적극적활동	110	34.5		전세	11	4.2
혼인상태	미혼	9	2.8		소유	305	94.8
	기혼	279	87.5	거주기간	1년미만	1	0.3
	사별	27	8.5		1-5년	9	2.8
	이혼	2	0.6		5-10년	15	4.7
	기타	2	0.6		10년이상	294	92.2
동거자녀	없음	209	65.5	공동체활동	1년미만	6	1.9
	영유아	1	0.3		1-3년	94	29.5
	취학이상	97	30.4		3-5년	96	30.1
	둘다있음	9	2.8		5년 이상	123	38.6
	기타	3	0.9	장애유무	있음	8	2.5
					없음	311	97.5

마을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50대 이상 연령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10년이상거주자와 고졸이하 학력이 대부분인 특성을 보인다.

다음 <표 5>는 행복영향요인과 공동체인식에 대한 Likert 9점척도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실제 마을기업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행복감이나 공동체 인식은 평균 7점정도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부행정적인 요인들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5> 행복영향요인과 공동체인식의 실태분석

행복(영향)요인		평균	표준편차	공동체인식요인		평균	표준편차
행복감	삶의 만족도	7.26	1.15	공동체성	구성원간 상호교류	7.88	.89
	주관적 행복감	6.95	1.17		공동체와 상호교류	7.21	1.15
개인적 차원	건강함의 인식	7.16	1.33		공동체 소속의식	7.12	1.11
	긍정적 사고	7.54	1.05		공동체 자부심	7.48	.95
정부 행정 인식	자율성 인식	6.12	1.72		주요활동 참여	7.56	1.65
	정치적 안정성	6.01	1.87		의사결정 참여	7.05	1.97
	정부 책임성	5.84	1.89	공동체 역량	리더 역량 인식	6.84	1.48

생활 환경 인식	불평등 해소	5.45	1.66	조직 역량 인식	6.15	1.91
	법의 준수	5.67	1.54			
	정부 부패대응	4.05	1.05			
	정부 행정성과	5.25	1.65			
	재난안전 인식	7.31	1.98			
	생활복지공간	6.85	1.17			
	생활의 편의성	5.21	.91			

2. 행복과 공동체 요인의 조절효과 분석

다음으로 실제 주민들의 행복감과 영향요인들의 관계를 살펴보고 공동체인식이 영향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각 변수들의 측정을 위해 설문 문항의 응답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우선 독립변수에 대해 개인적 차원의 인구통계적 문항을 제외하고 인식에 대한 설문문항들을 주성분분석과 베리맥스회전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값(Eigen Value) 1이상을 기준으로 행복영향요인에 있어서 2개의 성분이 추출되어 정부행정차원의 변수들(12개)과 생활환경차원의 변수들(6개)로 구성하였다.¹³⁾ 그리고 조절변수인 공동체인식에 대한 문항들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실시한 결과 2개의 성분이 추출되어 공동체성 변수들(6개)과 공동체역량인식 변수들(7개)의 2개 변수로 구성하였다.¹⁴⁾

본 연구의 조절효과는 대부분의 조절효과에서 활용되고 있는 Baron & Kenny(1986)의 검정방식을 활용한다.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표 6>처럼 조절변수에 대한 상호작용항을 구성하여 독립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을 각각 투입하는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표 6〉 Baron & Kenny(1986)의 조절효과 검증방법

단 계	모 형	조 건
Step 1	$Y = \beta_{10} + \beta_{11}X$	
Step 2	$Y = \beta_{10} + \beta_{11}X + \beta_{12}M$	
Step 3	$Y = \beta_{20} + \beta_{21}X + \beta_{22}M + \beta_{23}XM$	ΔR^2 의 유의미한 증가(β_{23} 가 유의미)

주 : β 는 회귀계수, X는 독립변수, M는 조절변수, XM은 상호작용항

13) 독립변수들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KMO값이 0.823, Bartlett구형성 검정결과($p=0.00$)가 유의하여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으며 크로마흐 신뢰도분석결과 두 성분 모두 0.96이상의 신뢰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14) 조절변수들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KMO값이 0.782, Bartlett구형성 검정결과($p=0.00$)가 유의하여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으며 크로마흐 신뢰도 분석결과 두 성분 모두 0.88이상의 신뢰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할 때,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곱한 형태로 상호작용항이 형성되기 때문에 모형3에서 다중공선성(VIF)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므로 본 연구는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마을기업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선 공동체성의 조절변인을 중심으로 행복영향관계의 조절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공동체성의 조절회귀분석 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	
		B	t	B	t	B	t
(상수)		-3.754	-5.869	-2.235	-3.301	-2.120	-3.051
독립 변수	건강인식	.167	3.871***	.119	2.802***	.128	2.945***
	긍정성 인식도(x1)	.296	6.025***	.236	4.873***	.221	4.122***
	소득(x2)	-.028	-.617	-.033	-.753	-.013	-.282
	공동체활동기간(x3)	.096	1.769	.038	.710	.038	.690
	정부행정차원(x4)	.265	4.628***	.235	4.268***	.227	4.145***
	생활환경차원(x5)	.126	2.340*	.037	.682	.052	.921
통제 변수	성별	.051	.518	-.005	-.052	.002	.019
	연령	.074	.888	.009	.109	.032	.395
	교육수준	.120	1.313	.063	.719	.072	.802
	종교	.182	2.024*	.225	2.595*	.237	2.686*
	배우자	.274	.909	.163	.555	-.002	-.005
	고용형태	.055	1.541	.015	.421	.022	.630
	거주기간	-.163	-.921	.172	-1.639	-.321	-1.849
	장애여부	-.453	-1.703	.262	-.925	-.280	-1.061
조절 변수	공동체성			.302	5.288***	.303	4.685***
상호 작용	x1×m1					.052	1.186
	x2×m1					-.070	-1.340
	x3×m1					.054	1.215
	x4×m1					-.112	-2.283*
	x5×m1					.066	1.084
R ² (△R ²)		.494		.519(.012)		.587(.068)*	
F		21.181		21.773		22.203	

*p<.05 **p<.01 ***p<.001

우선 모형적합도를 보면 3모형 모두 F값이 유의하며 R²가 대략 0.5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50%정도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형3에서 보면 상호작용항 변수들

의 투입을 통해 R^2 값이 .068로 상승하여 공동체성 요인이 독립변수의 영향관계를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독립변수만을 투입한 모형1을 보면 개인적 차원인 건강(.167)과 긍정성에 대한 인식(.296)은 주민들의 행복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통제변수 중에서는 종교의 유무(.182)가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질이나 자율성을 의미하는 정부행정요인(.265)과 생활환경의 질(.126) 또한 주민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조절변수인 공동체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형2에서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는 모두 같으며 특히 조절변수인 공동체성(.302)은 주민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1에 비해 건강, 긍정성, 정부행정차원의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며 생활환경차원은 더 이상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만을 투입한 결과를 보면 주민의 행복감에 있어서 공동체성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임을 알 수 있으며 다른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모형3은 조절변수인 공동체성과 독립변수간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여 이를 회귀모형을 투입한 결과이다.

우선 모형3은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모형적합도인 R^2 가 0.068만큼 상승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마을기업 응답자들에게 공동체성은 행복영향요인들의 효과를 높이는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상호작용을 검토한 결과 정부행정차원과 공동체성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조절효과와 상호작용항이 음수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독립변수인 정부행정적차원 요인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공동체성 조절변수가 약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들이 공동체성이 강해질수록 정부행정차원요인이 개인의 행복 인식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공동체역량인식의 조절변인을 중심으로 행복영향관계의 조절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우선 모형적합도를 보면 공동체역량요인의 조절효과 또한 3모형 모두 F 값이 유의하며 R^2 가 대략 0.5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50%정도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모형3에서 보면 상호작용항 변수들의 투입을 통해 R^2 값이 .003로 상승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에 따라 공동체역량인식 요인이 독립변수의 영향관계에 대한 조절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인 공동체역량인식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형2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는 개인적 차원에서 건강인식과 긍정성인식, 종교유무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고 정부행정과 생활환경 차원 모두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절변수인 공동체역량인식(.083)은 독립변수로서 행복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형3을 살펴보면 조절변수인 공동체역량인식과 독립변수간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여 이를 회귀모형을 투입한 결과 유의미한 상호작용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동체역량인식 요인은 독립변수인 직접적 영향이나 조절변수로서 간접적인 영향 모두 행복영향관계에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생활환경차원의 요인을 살펴보면 상호작용항 투입 전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투입 후 효과가 유의미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비록 상호작용항($x_5 \times m_2$)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계수가 음수라는 점에서 생활환경요인의 행복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공동체역량인식의 조절회귀분석 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	
		B	t	B	t	B	t
(상수)		-3.754	-5.869	-3.433	-5.190	-3.475	-5.138
독립 변수	건강인식	.167	3.871***	.167	3.897***	.170	3.902***
	긍정성 인식도(x_1)	.296	6.025***	.291	5.943***	.288	5.597***
	소득(x_2)	-.028	-.617	-.032	-.697	-.017	-.359
	공동체활동기간(x_3)	.096	1.769	.078	1.435	.081	1.454
	정부행정차원(x_4)	.265	4.628***	.250	4.327***	.258	4.130***
	생활환경차원(x_5)	.125	2.340*	.126	2.378*	.109	1.911
통제 변수	성별	.051	.518	.039	.393	.045	.443
	연령	.073	.888	.053	.642	.060	.706
	교육수준	.120	1.313	.081	.860	.091	.958
	종교	.182	2.014*	.187	2.085*	.194	2.138*
	배우자	.278	.909	.228	.745	.212	.662
	고용형태	.055	1.541	.062	1.731	.063	1.736
	거주기간	-.164	-.921	-.203	-1.135	-.211	-1.169
	장애여부	-.459	-1.703	-.468	-1.742	-.496	-1.826
조절 변수	공동체 역량인식(m_2)			.083	1.820	.070	1.360
상호 작용	$x_1 \times m_2$.012	.247
	$x_2 \times m_2$					-.037	-.622
	$x_3 \times m_2$					-.017	-.373
	$x_4 \times m_2$.064	.990
	$x_5 \times m_2$					-.043	-.818
$R^2(\Delta R^2)$.494		.499(.005)		.503(.003)	
F		21.181***		20.140***		15.062***	

* $p < .05$ ** $p < .01$ *** $p < .001$

3. 토론

본 연구는 공동체활동을 수행하는 주민들의 시각에서 실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공동체인식의 어떠한 부분이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영향분석을 위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개인적차원, 정부행정차원, 생활환경차원으로 구분하였고 공동체인식 요인은 공동체성과 공동체역량인식으로 구성하여 조절효과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자면, 우선 개인적차원의 결과에서 소득수준보다는 건강에 대한 인식이나 긍정성에 대한 인식은 행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Myers & Diener(1995)나 Seligman(2002)이 강조하는 행복심리학의 내용으로 신체에 대한 건강인식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행복의 주요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득과의 행복과 관계를 강조한 Venhoveen(1991)의 주장은 마을기업활동을 수행하는 주민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실제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은 소득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나 공동체 활동 그 자체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⁵⁾ 따라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중요한 점은 단순히 소득수준 향상에 대한 접근보다는 공동체에서 스스로 자존감과 긍정적 인식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활동의 영역이 확산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수준에 대한 결과는 최소한의 욕구충족에 따른 보다 상위욕구를 지향한다는 Maslow(1999)의 위계적 욕구이론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행정요인의 인식에 있어서 Frey & Stutzer(2002)가 공공서비스와 같은 거버넌스의 질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다고 언급한 바처럼, 주효과 분석에 있어서도 행복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간 실증분석의 과정을 통해 소득불평등, 정부의 질과 같은 요인들을 통해 삶의 만족도의 향상을 도출한 서문기(201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는 주민들의 소득 및 이윤창출을 주요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단순 보조 및 재정지원 사업보다는 실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고 책임성과 정치적 자유보장과 같은 정부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함의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질에 대한 중요함은 다양한 공동체의 지원과 정책사업들에 있어서도 재정지원을 통한 통제와 감독의 관리주의적 공공적 행태보다는 협력하는 공동체, 주민주도로 활동하는 공동체의 책임성,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부의 태도를 지향하고 주민요구의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적 거

15)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이유가 필요하여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마을 기업을 방문하여 관련된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삶에 있어서 긍정성은 삶의 기복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소위 멘탈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공동체활동이나 행복에 있어서도 중요한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득과의 관계는 오히려 행복에 있어서 후순위가 아닐까 합니다. 공동체로 인해 행복해야 소득에 관심도 갖고, 공동체발전으로 소득이 늘면 행복하기도 하겠지요. 자신의 생존만 보장된다면 소득은 후순위의 욕구충족이라 봅니다”(충남 홍동 마을활력소 관계자 인터뷰/2016.4.25).

버넌스 체제의 정책접근방식을 지향해야할 것이다.

다음으로 조절변수의 분석결과를 살펴보자면 공동체성은 주민의 행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사조절변수의 형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주민행복의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며 다른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조절하는 공동체성은 주민행복에 매우 핵심적인 인식요인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동체성은 정부행정요인이 개인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하는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공동체성이 높은 개인일수록 정부행정에 대한 인식 자체가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지역공동체 활동에 있어서 정부의 관련 정책이나 활동들 보다는 개인이 공동체에 갖는 인식적 요인이 행복에 보다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체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Aristotle의 공동체적 사고처럼 인간은 사회 안에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미덕을 통해 행복(Eudaimonia)에 접근할 수 있다는 철학적 주장이 마을기업 현장에서는 매우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행복형성을 위해 공동체활동을 영위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간 보다 활발한 상호교류 활동을 증진하는 것이며 소속감과 연대감을 높이는 실천적 행위라 볼 수 있다. 또한 공동체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동체의식의 내재화를 위한 숙의과정의 공공성 형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성 형성의 과정은 구성원간 상호대화와 충분한 논의를 통한 공공선의 도출을 강조하게 되며 이렇게 형성된 공동체성의 내재화는 개인차원의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개인의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¹⁶⁾

반면 조절효과 분석결과 공동체역량인식은 직간접적으로 아무런 효과를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역량요인이 공동체 조직을 통한 개인 행복형성에 중요한 부분임에도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구성원들이 무엇보다도 개인 행복을 위해서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개인의 인식이 필수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관계를 살펴보면 실제로 공동체활동에서 역량의 인식은 공동체 운영과 이로 인한 개인의 행복과 매우 중요한 요인이지만 무엇보다 공동체성요인이 선행되어야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¹⁷⁾ 따라서 우선순

16) 이러한 공동체성과 행복에 대한 관계는 구체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관계성, 활동에 대한 자부심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짚공예를 전문으로 하는 우리 공동체는 처음에는 슬로시티로 지정되기 위해 짚공예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마을의 주 사업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구성원들의 짚공예 및 염색공예의 꾸준한 공동체 활동으로 공동체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자부심이 생겼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협동조합은 총회나 월1회 장터개최 같은 공식적 모임이 있지만 짚공예활동 어르신들이나 염색공예 부녀자들끼리 식사나 자주 있는 비공식적 교류활동 등으로 인해 오히려 관계의 행복이 커진다고 본다”(충남 예산 느린손 협동조합 관계자 인터뷰 실시).

17) 공동체 역량과 행복의 인식에 관해 구체적 사례의 인터뷰를 실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을공동체에서 리더십이나 조직력과 같은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조직생활을 해보지 않고 여러 구성원 의견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죠. 아무리 공동체 미션이나 비전이 훌륭해도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리더십이나 조직력 또한 리더와 구성원들의 공동체성에 기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리더만 행복한 조직이 되거나 가치 없이 사업만 잘 수행하는 기업과 같은 조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충남 백석울미 영농조합법인 관계자

위에 있어서 공동체역량 강화는 공동체 내부적으로 지향성에 대한 충분한 성찰이 내재되어 할 것이다. 그리고 조절효과 분석결과처럼 공동체 역량요인은 생활환경요인과 행복의 긍정적 영향관계를 상쇄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공동체 사업 수행으로 인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현대의 정부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목표라 할 수 있다(Duncan, 2013). 우리나라도 헌법 10조에서 행복추구를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지만 경제규모의 괄목할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실제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종합적 탐구와 함께 공동체인식이 미치는 조절효과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특히 실제 공동체활동을 수행하는 마을기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공동체요인들에 있어서 어떠한 요인이 주요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살펴본 결과 많은 행복 연구에서 지적한 소득에 대한 영향관계보다는 건강인식이나 긍정성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이 개인적 차원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행복인식에 있어서 정부활동이나 행정적 요인은 매우 큰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정책수요와 책임성에 따른 정부의 질 향상이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절효과분석에 있어서 공동체차원의 인식요인인 공동체역량인식보다는 개인차원의 공동체 인식인 공동체성의 함양이 개인의 행복에 큰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공동체성은 직접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의 영향관계도 조절하고 있는 조절변수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부행정차원의 변수 효과를 감소시키는 조절역할을 수행하여 결국 공동체활동을 수행하는 주민들에 있어서 행복은 직접적인 정부의 지원과 관련 활동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상호교류와 소속감, 자부심과 같은 공동체를 지향하는 인식적 요인이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우선 인간의 행복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경제적 성장이나 소득과 같은 물질적 차원이 주요한 고려대상이 아니라 공동체 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관계적인 행복과 공동체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취감, 자부심, 보람과 같은 인식적인 차원이 중요한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개인의 행복추구는 Hegel이 제시한 인정과 관계적 요인과 함께 공동체라는 사회집단 내에서 형성될 수 있는 인식적 욕구의 충족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주민의 행복에 있어서 정부행정차원의 요인이 의미가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공동체가 강조되고 있는 현대 우리사회에서 국민행복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좋은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의 질을 높이고 정책 수용성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민관 거버넌스의 협력적 국정 운영방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정부행정차원 요인은 공동체성 요인의 조절효과로 행복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감소하는 만큼 좋은 정부활동의 방향은 주민의 자발적인 공동체성 형성과 활동에 기반한 자치적 지원방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성이 행복추구의 직간접적인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실제 주민의 행복의 추구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곳곳에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활동이 가능하여 공동체성을 높일 수 있는 인식제고와 활동기회들의 제공에 주목해야 함을 제시할 수 있다. 정부는 실제 주민의 행복의 추구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곳곳에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활동이 가능하여 공동체성을 높일 수 있는 인식제고와 활동기회들의 제공에 주목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대기. (2003). 패러다임 변화와 공동체의 통합개념 구축. 『농촌사회』, 13(2): 7-40.
- 강용배. (2003). 지역사회 정체성과 사회자본 형성요인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2): 189-216.
- 구재선·서은국. (2011). 한국인, 누가 언제 행복한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 29-47.
- 김남선·우룡. (1995). 아파트단지 주민의 공동체 의식형성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95: 93-110.
- 김성동. (2007). 인간의 행복에 대한 새로운 접근. 『대동철학』, 41: 51-77.
- 김인. (2014). 공동체의 제도, 리더십, 신뢰 및 사회생태체계가 집합적 활동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논집』, 26(3): 48-72.
- 김종일. (2007). 공동체 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 공동체와 개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고학』, 5(2): 57-69.
- 김학실. (2013). 도시재생관점에서 마을기업의 역할. 『한국정책연구』, 13(2): 41-60.
- 김현정. (2016). 소득불평등 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계층상승 가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5(2): 559-586.
- 맹주만. (2013). 칸트의 도덕적 행복과 아리스토텔레스. 『칸트연구』, 32: 167-196.
- 문성훈. (2006). 하버마스에서 호네토로: 프랑크푸르트학과 사회비판모델의 인정이론적 전환. 『철학연구』, 73: 123-171.
- 박병춘. (2012).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모형 및 기본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0(2): 1-26.
- 박수호·이민정. (2013). 행복 요인으로서의 사회적 인정. 『사회와 이론』, 23: 361-391.
- 서문기. (2015). 잘 사는 국가는 행복한가? 『한국사회학』, 49(1): 111-137.
- 서재호. (2012). 국내 공동체(커뮤니티) 연구에 대한 종합적 메타분석과 행정학에 대한 함의: 연구분야, 방법, 목적 및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행정연구』, 22(4): 155-182.
- 서은국. (2014). 『행복의 기원』. 서울: 21세기 북스.
- 신예철. (2013). 지역만들기에 있어서 지역공동체 역량이 지속적 참여와 참여확대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중진·이동균. (2007). 주민참여에 의한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에서 참여주체의 관계구도와 역할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3(2).
- 신중진·김일영·배기택. (2013).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추진방안 연구. 『국토계획』, 48(6): 43-56.
- 우창빈. (2013).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정책은 가능한가?: 행복을 목표로 하는 공공정책의 이론, 논란, 가능성과 조건들. 『행정논총』, 51(2): 283-318.
- 우창빈. (2014). 대안적 글로벌 개발협력의 이론 모색: 행복론의 이론적 근거와 정책적 함의.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4): 409-432.
- 이명곤. (2011). 행복의 개별적·사회적 조건에 관한 철학사적 고찰. 『철학·사상·문화』, 11: 102-126.
- 이상임. (2005). 쾌락과 도덕의 문제: 유가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유교사상연구』, 23: 291-321.
- 이용철. (2012). 루소의 행복론: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행복. 『통합인문학연구』, 4(1): 1-19.
- 이종수. (2008). 「공공성과 공동체: 한국사회의 '결핍'에 대한 진단과 '회복'을 위한 담론」. 한국 살기좋은 지역공동체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52-74.
- 이재혁. (2007). 시민사회와 시민적 자본- 시장적 관계 모형. 『사회와 이론』. 한국이론사회학회: 213-261.
- 장용석·조문석·정장훈·정명은. (2012). 사회통합의 다원적 가치와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가주의,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세계시민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6(5): 289-322.

- 전대옥. (2012).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
- 전대옥. (2015). 지역공동체 회복력 (Community Resilience) 의 개념과 적용방안. 「국토」 : 34-39.
- 정명은·김미현·정용석. (2014). 서울시민의 행복과 사회자본 관계 분석. 「서울도시연구」. 15(1): 163-186.
- 정지범. (2011). 「국민행복 결정요인 분석 및 제도적 관리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
-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2015). 「2015 충남 마을기업 실태조사」.
- 최병두. (2006). 살기좋은 도시를 위한 지역공동체 복원방안. 「지리학연구」. 40(4): 513-528.
- 최진옥·윤건수·김현. (2012). 정부의 질 개념 구성에 관한 탐색. 「정부학 연구」. 18(2): 53-76.
- 한재명·류재린·김균. (2015). 관계재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사회경제평론」. 46: 103-141.
- 행정자치부. (2016).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홍병선. (2012). 행복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교양논총」, 7: 6-34.
- Agyle, M., (2001). The Psychology of Happiness. New York: Taylor & Francis.
- Aristotle, Ethika Nikomacheia: 최명관 역. (1984).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 서광사.
- Baron, R. M. and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5): 1173-1182.
- Hegel, G. (1821). Philosophie des rechts; 임석진 역. (2008). 「법철학 강요」. 파주: 한길사.
- Honnet. A. (1995). Kampf um anerkennung; 문성훈·이현재 역. (2011). 「인정투쟁」. 서울: 사월의책.
- Davidson, B., Cotter, R. (1986). Measurement of Sense of Community within the Sphere of Cit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6: 608-619.
- Dei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einer, E., Suh, M., Lucas, E. & Smit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Di Tella, R., Macculloch, R., Oswald, A. (2003). The Macroeconomics of Happines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5(4): 809-827.
- Duncan, G. (2013). Happiness, Sadness and Goernment. *Health, Culture and Society*. 5(1): 51-66.
- Easterlin, R.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David, P. & Reder, M.(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ur of Moses Abramovitz*. New York: Academic Press.
- Frey, B. (2008). *Happiness: a Revolution in Economics*. Cambridge. MIT Press.
- Frey, B. & Stutzer, A. (2002). *What Can Economists learn from Happiness Research?* Princeton: Princetern University Press.
- Helliwell, J., Putnam, R.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The Royal Society*. August: 1435-1446.
- Hillery. A. (1955).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111-123.
- Inglehart, R. and Klingemann, D. (2000). Genes, culture, democracy and happiness, Diener, E. and Suh, E.M. (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Cambridge MA: MIT Press.
- Inglehart, R. Foa, R., Peterson, C. and Welzel, C. (2008). Development, Freedom and Rising Happiness: A Global Perspective(1981-2007). *Pe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4): 264-285.
- Kahneman, D., Krueger, A., Schkade, D., Schwartz, N., Stone, A. (2006). Would you be happier if you were richer? A Focusing Illusion. *Science*, 312: 1908-1910.
- Lash, S. (1994). Reflexivity and its Doubles: Structure, Aesthetics, Community. In U. Beck, A. Giddens, and S.Lash(Eds.), *Reflexive modernization politics tradition and aesthetics in the modern social order*. Stanford University Press.
- Layard, R. (2006). *Happiness : Lessons from a New Science*. London: Penguin Books.
- Maslow, A. (1999).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3rd Edition. NJ: John Wiley & Son.

- McMillan, D., Chavis, D.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6-23.
- Nettle, D. (2005). *Happiness, the Science behind your Smile*. Oxford University Press.
- Nisbet, A. (1953). *The Quest for Commun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opplin, E. (1979). *A Survey of Theories and Methods of Research*. MacMillan Publishing Co.
- Seligman, M.E. (2002).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Free Press.
- Subramanian, S., Kim, F., Kawachi, I. (2005). Covariation in the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Self rated Health and Happiness. *Journal of Epidemiol Community Health*. 59: 664-669.
- Veenhoven, R. (1991). Questions on Happiness: Classical topic, Modern answer, Blind spots. Stack, F., Argyle, M. & Schwartz, N. (eds.). *Subjective Well-Being*. Oxford: Pergamon Press.
- Veenhoven, R. (2000). Freedom and Happiness: A comparative Study in Forty-four Nations in the Early 1990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257-288.
- Welsch, H. (2009). Implications of happiness research for environmental economics. *Ecological Economics*, 68: 2735-2742.

[저자소개]

全 志 薰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공동체요인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 마을기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2016), 현재 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 연구센터에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적경제, 행복, 공동체, 지역문화정책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창조도시 형성 조건과 협동조합 활동의 관계 연구: 볼로냐 퀘벡사례를 중심으로(2016, 공저)”, “지역의 공동체활동과 문화 및 지역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2015, 공저)” 등이 있다(basillica@cni.re.kr).

丁 文 基 미국 Florida State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행정학)를 취득하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및 국정전문대학원 정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방행정 및 거버넌스, 지역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정부 간 관계 등이다. 주요 연구결과로 “지역혁신체제가 창조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분석(2016, 공저)”, “한국거버넌스 사례연구(2015, 공동성·정문기 역음)”, “Voluntary Environmental Programs and Corporate Economic Performance(2014, 공저)” 등이 있다(mgjeong@skku.edu).

Abstract

Analysis on the Effect between the Community Perception and Happiness: Focusing on the Participants of the Community Business in Chungcheongnam-do

Jeon, Gi-Hoon · Jeong, Moon-Gi

The study aimed to identify a range of factors influencing personal happiness in theoretical discussions, examine their causal relations, and investigate what roles the community factors would play in the various influential relations of personal happiness. For those purposes, the study employed a method of diversification including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moderating effects. The main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elf-positivity and health factors were more significant influence than an income level at the personal dimension. Therefore the important point for happiness is that dispersion of the supporting policy for various community activities is needed. Second, here were very significant influential relations between personal happiness and the government's perceptions of it at the administrative level. It makes essential for the public sector to work hard to increase the capabilities and quality of the government. Third, the community's sense of members had the most significant influential relations with the moderating effects of community perceptions. Finally, it is most important point for community residents is to promote interaction among community's members and the feeling of belonging and solidarity in the community.

Key words : Happiness, Community Perception, Community Business, Moderational Effects